

금요 양성 2026년 1월 9일

##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

### 권고들에 집중 (#1)

<https://www.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admonitions/144-fa-ed-1-page-128>

#### [I. 그리스도의 몸]

<sup>1</sup>주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.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. <sup>2</sup>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.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, 또 그분을 이미 본 것이다. <sup>3</sup>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,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.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, <sup>4</sup>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필립보야,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,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? 나를 본 사람은 곧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. 요한 14:6-9

<sup>5</sup>아버지는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고, <sup>1</sup>티모 6:16 하느님은 영이시며, <sup>요한 4:24</sup>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. <sup>요한 1:18</sup> <sup>6</sup>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<sup>요한 6:63</sup> 하느님은 영 안에서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. <sup>7</sup>이와같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에 아버지를 보는 방법과 다르게 또한 성령을 보는 방법과 다르게는 아무도 아드님을 볼 수 없습니다.

<sup>8</sup>그래서 예수를 영과 신성으로 보지 않고, 인성으로만 보아 그분이 하느님의 참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모든 사람은 단죄받았습니다. <sup>9</sup>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대 위에서 사제의 손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축성되는 성사를 보면서, 영과 신성에 따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라는 것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모든 사람도 단죄받습니다. <sup>10</sup>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[이것을] 증명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.

이는 내 몸이며 (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]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다. <sup>마르 14:22</sup> <sup>11</sup>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. <sup>마르 14:24</sup> <sup>12</sup>그러므로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서 머무르시는 주님의 영이 <sup>요한 6:55</sup>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. <sup>13</sup>바로 이 영을 지니지 않은 채 감히 주님을 받아 모시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. <sup>1코린 11:29</sup>

<sup>14</sup>그러니 사람의 아들들이여, 언제까지 굳은 마음을 가지렵니까? <sup>시편 4:3</sup> <sup>15</sup>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까? <sup>요한 9:35</sup> <sup>16</sup>보십시오! 그분은 어좌로부터 <sup>필리 2:8</sup> 동정녀의 태중으로 <sup>지혜</sup>

<sup>18:15</sup> 오신 때와 같이 매일 당신 자신을 낮추십니다. <sup>17</sup>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매일 우리에게 오십니다. <sup>18</sup>매일 사제의 손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<sup>a</sup>

<sup>1 19</sup>그리고 당신 자신을 참된 살로서 거룩한 사도들에게 보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축성된 빵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 주십니다. <sup>20</sup>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분의 육신을 보았지만, 영신의 눈으로 관상하면서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었습니다. <sup>21</sup>이와같이 우리들도 육신의 눈으로 빵과 포도주를 볼 때, 그것이 참되고 살아 있는 그 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라는 것을 보고 굳게 믿도록 합시다. <sup>22</sup>이처럼 보라,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대로 주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과 함께 항상 이렇게 계십니다.

### 토론및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

- + 이 권고를 주의깊게 읽은 후에, 성체에 대해서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느꼈는지 주목해 보시오.
- + 성체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? 성체를 모시는 것이 당신의 영적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?

성체에 대한 배론 주교의 강론 (2024)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ZMw7CejKUY>